



한국의 사례 ③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 경북대학교도서관의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 운영" 사례

최귀련\*

경북대학교도서관에서는 2001년 7월 제정한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 운영 세칙에 따라 모든 소장자료를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지역주민 도서관이용 회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대상은, 대구·경북지역주민, 대구·경북 지역 공무원 및 교원, 대구·경북 연구기관 및 기업체 소속 직원이며, 회원은 우대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되어있다.

일반회원의 이용기간은 1년이며, 발전기금(도서관) 10만원을 일시불로 출연하는 자로서 10회 이상 납부한 자는 우대회원으로 대우한다.

우대회원은 도서 1,000권(장서로 등록 가능한 자료)이상 기증자, 발전기금(도서관)100만원 이상 출연자, 고서 100권 이상 기증자, 귀중본이나 희귀서 기증자(책 수에 관계없이 별도 심사), 일반회원으로 10년을 경과한 자로 규정

되어 있다. 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사용처를 도서관으로 지정할 때만 가능하였으나, 2003년 5월부터는 "경북대학교 발전기금 출연자 예우지침" 시행에 의거 1,000만원 이상 출연자 모두에게 도서관(평생)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향후 우대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등록자는 일반 42명, 우대 30명이며, 현재 자격을 유지하는 회원수는 일반 25명, 우대 30명이다. 일반회원의 구성은, 대학 졸업자(경북대, 타대학), 각종 시험, 자격증 준비생, 법관, 회계사, 교사, 공무원, 회사원 등이며, 재등록자도 4명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경북대학교도서관이 상당히 까다롭게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지역의 다른 대학들은 소속구의 구민에게 무료로 대출하기도 하고, 보증금을 내면 대출 할 수 있게 하여, 회원 탈퇴시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과 대출반납팀장, grchoi@knu.ac.kr

에는 보증금을 환불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북대학교 도서관은 지리적으로 대구광역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일반인 이용자가 많은 편이며, 연간 대출책 수가 92만권(2002년)에 달하고 있는 현재의 여건으로는 일반인에게 대출까지 제공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경북대학교도서관에서는 1일 1만여명 출입자중 상당수인 1일 평균 400여명의 일반인 이용자에게 자료를 이용하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대학도서관도 지역주민에게 완전히 개방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을 것이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公衆)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인력으로 지역주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기란 참 어려운 실정이다. 그만큼 대학 구성원에게 혜택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대출한 자료가 반납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대학도서관의 이용에는 자료의 열람, 정보검색, 복사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식할 때에는 도서관 개방을 단순히 자료의 대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경북대학교도서관은 일반인에게 최대한 개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반인에게 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아니 외국인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도서관 출입을 원할 경우 안내실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입증을 받아 도서관의 모든 자료를 열

람, 정보검색,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지역주민 회원제 등록을 하면 이용 할 수 있다. 1년에 10만원의 발전기금(도서관)이 많아 보이기는 하나, 그 기금으로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더 많은 도서를 구입하여 여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에는 주민이 이용 대상인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어 있다. 현재는 공공도서관의 수가 적고, 소장자료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도서관 이용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 주민 모두가 자료 많은 대학도서관을 찾는다면 공공도서관은 점점 더 낙후될 뿐이다. 공공도서관은 주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학도서관은 완전 개방할 수 있는 예산지원과 자료의 확충, 공간 확보, 직원 충원 등이 이루어지면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지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